

프랑스 작업실 지원정책과 창작환경

culture 'art

파리는 세계 각국의 작가들이 모여든 집합장인 것처럼 작업실의 형태도 다양하다. 작가들의 대다수가 정부작업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므로 이들은 주로 폐쇄된 공장을 임대하여 작업한다. 작가의 창작의 장을 흔히 '공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지로 이곳의 작가들은 현재 폐쇄된 공장에서 일한다.

최예희 재불작가

프랑스 작업실 지원정책의 의도와 역사적 배경

작가에게 창작 공간을 마련해 주는 정부작업실 지원정책은 앙드레 말로 장관의 프랑스 문화개혁의 정책으로부터 시작된다.

1960년대 초, 문화성의 문화부 출범 이후 프랑스 정부에 의해 지원된 작업실은 다른 사기업의 작업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며 정부는 해마다 파리와 파리 근교, 각 지방별로 작업실 신축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도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에게 창작의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들간에 정보체제를 좀더 용이하게 할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지만, 사실 19세기 말 이후 프랑스에 유럽 미술의 중심적 역할을 제공했던 작가들의 활동과 그들이 남긴 유산으로 문화강국이 되었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작가 육성 제도) 방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실지로 많은 작가들이 미국이나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앙드레 말로 장관은 프랑스 예술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이 필요했다.

정부 작업실의 신축과 동시에 폐쇄 위기상태에 있는 역사 깊은 사립 또는 개인 독자 지원 작업실에도 정부의 지원이나 보호가 시작됐다. 1880년 파리에 최초로 생긴 '집단 작업장'으로 현재까지 30여 명의 작가가 작업하고 있는 13구의 작업실 '시떼 플뢰리(Cite Fleurie)'와 1902년 140여 개의 대형작업실로 출발한 작업실 '라 루쉬(La Ruche)'가 그 대상이었다.

작업실 '라 루쉬'는 2년 전에 창립 100주년을 맞았다. 이곳의 역사를 통해 작



파리 15구, 작업실 '라뤼쉬'와 그 내부(Francis Herth 작가 작업실)

업실 지원의 기본의미를 알 수 있고 또 작업실이 작가들의 예술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 수 있다. 현재 60여 명의 작가가 파리 15구의 한 지붕 밑에서 동거 동락을 하고 있는 라뤼쉬 작업실은 에펠이 지은 별집 형태의 철조 건물과 작업실의 창시자가 지었던 작가촌들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파리 한복판에 보기 드문 넓은 정원과 오래된 나무들, 그 안에 몇 개의 작업실이 있는 이곳의 후원자는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조각가 알프레드 부셰(Alfred Boucher-까뮈 클로텔의 조각 선생이었음)이다. 그가 젊은 작가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마련한 엄청난 규모의 작업실은 초창기에 특히 동유럽 출신의 어려운 작가들의 집합장이 되었으며 주거지와 작업장으로 유용한 터전이 되었다.

이곳 작가들의 활동은 곧이어 프랑스 미술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에콜드 파리(Ecole de Paris)의 작가들을 비롯해 세계적인 작가들을 배출한 유서 깊은 공동작업실이 되었다. 초창기에는 레제(Leger), 수틴(Soutine), 크레멘느(Kremegne), 모딜리아니(Modigliani), 자드킨(Zadkine), 브랑쿠시(Brancusi) 등의 작가가 있었고, 그후 알트망(Altman), 아키캬코

(Archipenko), 샤갈(Chagall)로 이어졌다.

현재도 러시아 작가들을 비롯해 15개국 작가들이 작업하고 있고, 초창기의 정신을 살려 어려운 작가들을 보호하며 최소한의 임대료로 유지되고 있으나 건물 보수지원과 같은 큰 재정은 정부가 맡고 있다. 1965년 폐쇄될 위기를 넘긴 뒤 우여곡절 끝에 1972년 몇 개의 건물이 현재 '역사 기념건축물'로 지정됐다. 규모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오늘날까지 작가들의 작업장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이곳의 작가를 돕기 위해 나선 새로운 재정지원가와 작가 샤갈, 장관 앙드레 말로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오늘날 정부의 보호 하에 작가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유일한 비영리 재단의 작업실이 되었다.

이러한 재단 형식의 역사를 갖는 작업실로 '국립작가촌(Maison nationale des artistes)'이 파리 외곽 노장(Nogent)에도 있다. 1945년 국가에 기탁된 후 파리를 비롯해 90개의 작업실과 주택을 관장하는 국립미술재단이 운영하는 이곳의 특징은 넓은 녹지 안에 작가 양로원과 작업실이 함께 있는 것이다. (한국작가로는 김인중 신부가 이곳에 있었다)

위의 재단들은 정부 산하의 기관인 지역문화부와 연합

하여 작가 선별을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역사 깊은 집단작업실이 정부 보조나 관리 하에 보존되는 경우와는 별도로, 정신적인 역사의 보유 차원에서 새로 건축된 정부작업실이 있다. 몽마르트의 바토라부아(Bateau Lavoir)의 경우인데 초창기의 피카소, 반동갱, 막스 자콥 등 여러 작가들이 세를 내며 사용했던 작업실이 1970년 화재로 사라지자 문화성은 근처 땅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작업실 바토라부아'의 명칭으로 작가들에게 분배하여 한 세기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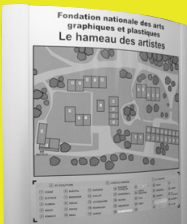
파리 13구, 리코가의 작가 전용 아파트

문화성과 국가작업실의 현황 및 창작환경

-파리 시내의 정부작업실 현황

파리시는 20개의 구로 나뉘는데 말로 장관 이후 지어진 새 정부 작업실이 각 구에 흩어져 있다. 13구와 19구, 20구에 10년 전후로 지어진 몇 개의 대형 건물이 작가 전용 아파트(작업실과 주거용)로 있으나, 대개 작업실은 일반인들의 주거용 아파트 단지 내에 섞여 있는 구조이다.

이 아파트들은 최근부터 3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로 집과 작업실



노장, 작업실 '국립작가촌'



이 분리되었거나 같이 있는 경우 혹은 작업실로만 있는 것도 있다. 기본적으로 작가는 집과 아파트를 같이 배당 받으며 임대료는 보통 집값의 35~50%이다. 3년 전부터 파리의 집값이 폭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작가가 내는 임대료는 일반 주택보다 더 싸진 경향이다.

2000년도 이후 13구를 예술 구역으로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재건설 정책이 있었다. 현대미술을 전담하는 화랑가를 비롯해 그 주변으로 많은 작업실이 건축되어 오랜만에 예술계에 새로운 변화를 갖게 했다.

이에 반해 14구는 최근에 지어진 것은 없지만 20~35년 전에 지어진 국가작업실이 많은 곳이며 주거를 같이하는 개인 임대작업실도 제일 많은 곳이다. 1910년 파리의 남북, 몽파르나스와 몽마르트르를 횡단하는 지하철 12번 노선이 생기면서 피카소를 비롯한 몽마르트르의 작가들이 남쪽 몽파르나스 지역으로 대거 이주하게 되었고, 그 이유로 14구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작업실이 있다고 한다.

필자가 있는 국가작업실도 14구인데 자코메티와 자욱기가 있었던 작업실 근처에 위치한다. 구조는 30년된 대형 현대식 아파트들이 둘러싸인 마당 안에 총 5개의 작업실들이 단층으로 나란히 붙어 있고 면적은 50~60평방미터, 내부는 복식이며 3명의 작가가 거주하고 나머지는 작업실로만 사용하고 있다. 이 작가들이 한 주소 안에 있지만 신청한 정부기관과 들어온 사연들은 각각각색이다. 특히 옆집의 부부 도예가는 사연이 길다. 30년 전 건물 폐쇄

이유로 두 번 연속해 개인 임대작업실을 잃고 문화성에 작업실 신청을 했으나 그 당시 도예가를 작가로 인정하지 않고 장인으로 분류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신청을 거절당했다고 한다. 결국 정부기관이지만 문화부와 성격이 다른 '구조대책과'를 통해 들어오게 되었다. 또 사교로 팔을 다친 미국인 조각가와 프랑스 화가는 각각 문화성의 조형예술부로 들어왔으며, 14구 구청의 문화부로 신청해 들어온 화가, 그리고 파리시의 문화부로 들어온 한국인(필자)이 있다.

-파리 외곽의 정부작업실 현황

파리에는 건물 신축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지원 작업실은 외곽에 많이 있고 규모도 파리에 비해 큰 편이다.

아파트식 작업실은 파리와 비슷한 구조이나 대형아파트에 일반인과 섞여 있는 경우에는 1층과 가장 높은 층이 작가들에게 주어지며 주거면적이 좀더 넓고 구조는 복식이 많다. 그러나 낭테르(Nanterre)의 한곳은 아파트 일층이 전부 작업실 용도이고 주거는 완전히 분리된 다른 층의 아파트 또는 근처 옆 동의 아파트에 마련되기도 한다.

외곽에는 도심에서 볼 수 없는 전원주택식 작가촌들이 있다. 길 이름의 전체가 '작가 마을'로 되어 있는 이런 곳을 대표적으로 3군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동쪽의 노장시(Nogent sur Seine, rue Agnes Sorel)에 나무로 지어진 건물들이 정원을 중심으로 나란히 붙어 있고 한 건물에 2-3가구 정도의 작업실과 생활공간이 있다. 남쪽 까상(Cachan, Allee des arts)의 작가촌은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에 세워진 조립식 철조 건물로 집과 작업실이 완전히 분리되고 넓은 정원이 특징이다.

좀더 외곽 북서 방향의 와즈(Oise) 강이 흐르는 퐁투와즈(Pontoise, rue des deux moulins)에도 콘크리트로 지어진 작업실 촌이

일단 국가작업실에 들어가게 되면 사용기간의 제한이 없다. 주인의 상황에 따라 이사를 해야하는 개인 임대작업실이나 집에 비해 작가는 많은 안정을 갖게 된다.

있다. 같은 장소에 세잔느가 살고 작업했던 건물이 보존되고 있어 작업실 이름도 '레지당스 세잔느'이다. 피사로를 비롯해 인상파의 작품들이 나왔던 이곳에서 와즈 강을 따라 동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고흐가 가장 많은 작업을 하고 짧은 생애를 마친 작업실, 오베르 시르 와즈(Auvers sur Oise)도 가까이 있다. (이 작가촌들의 특징은 그 도시의 경관이 좋은 곳에 위치하였고 주변에 산책로 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작업실의 크기는 50~80평방미터, 높이 4미터 이상이며 방은 1~3개가 있다. 면적에 따라 임대료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정부작업실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한다. 작가들은 작업실을 지은 건축회사에 임대료를 내고 이곳의 작가 선발은 문화성의 조형예술부에서 담당한다.

-정부지원 작업실 작가선발 기준 및 운영체제

정부작업실의 선발기준은 각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문화성의 작업실은 여러 기관에서 관장을 하지만 서로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으므로 작가 선발과 운영의 정부 부서는 크게 3곳으로 나눌 수 있다. 파리만 관장하는 파리시의 문화부, 파리와 각 지방 전역을 주관하는 문화성의 조형예술부, 각 파리 근교시 및 지방시의 시청 문화부 등이다.

파리 14구, (rue Alesia) 아파트단지 내부의 작업실





노장 작가촌

작업실은 각 기관마다 정해진 양이 다르며 문화성 산하의 여러 부서들이 프랑스 전역에 가장 많은 작업실을 관리하고 있다. 파리외 그 주변을 위성으로 한 외곽에 작가의 밀도도 많으며 국가작업실이 집중적으로 많다.

파리시 문화부는 일년에 두 번, 포토폴리오만으로도 심사하고 그 결과도 빠른 시일 안에 시행된다. 대조적인 방법으로 시청의 문화부는 그 시에 속한 작가의 개인 사정도 적용하므로 식구가 많은 작가가 유리하며 혼자인 작가 일수록 시간이 좀 필요하다. 문화성의 조형예술부는 위의 두 곳을 합친 방식으로 작가를 선발한다. 작가의 조건은 작가로 인정된 국가 보험(예: La Maison des Artistes)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일단 국가작업실에 들어가게 되면 사용기간의 제한이 없다. 주인의 상황에 따라 이사를 해야하는 개인 임대작업실이나 집에 비해 작가는 많은 안정을 갖게 된다.

만일 식구가 늘거나 사정상 방이 더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받았던 기관을 통해 교체도 가능하다. 행정적으로 작가끼리의 교체는 금지되어 있고 작가가 10년 가량 작업실을 방치할 경우엔 정부에 다시 반환되기도 한다. 정부작업실을 얻은 작가들이 그곳을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현재 프랑스 정부에 작업실을 신청하는 작가들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나 시에서 작가에게 요구하는 것은 없다. 일년에 한 번 3일 동안 구역, 시단위로 계획된 오픈스튜디오 행사가 있으나 참여의사는 작가의 자유이다.

정부지원 외의 작업실의 실태와 작가들의 양상

파리는 세계 각국의 작가들이 모여든 집합장인 것처럼 작업실의 형태도 다양하다. 작가들의 대다수가 정부작업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므로 이들은 주로 폐쇄된 공장을 임대하여 작업한다. 작가의 창작의 장을 흔히 '공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지로 이곳의 작가들은 현재 폐쇄된 공장에서 일한다.

바스티유 쪽의 피혁공장과 같이 가내수공업 하였던 작은 공간들은 작가들에게는 그나마 싸고 공간상 좋은 일터에 해당하므로 많은 수의 작가들이 이곳에서 작업하고 있다. 파리안의 큰 공장 또는 창고들은 1990년대 이후 대부분 재개발되어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 재개발 과정에서 일터를 잃어버린 작가들이 파리시, 문화성의 임대작업실을 받거나 또는 작업실 건축 보조비를 받고 이주한 사례들도 있지만 소유주가 국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통 작가들은 한동안 작업실을 못 구하는 현실이다.

(19구 운하에 위치한 작업실 '바생 드 라 빌레트' (Bassin de la Villette)의 화재 사건은 유명하다. 100년 이전부터 소금창고로 사용하다 비워두었던 곳을 1970년대 말 작가들이 국가와 30년 계약을 하고 작업실로 사용하던 중 불이 나 계약의 반도 못 채우고 80여 명의 작가들이 새로운 작업실을 찾아야 했던 경우가 있었다. 주인이 국가이므로 해결책은 국가작업실로 작가들이 이주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이곳은 작가 외에 건축가들도

많았는데, 당시 강명희 임세택 김희경 정기 용 오경환 심현지 등 한국작가들도 많았던 파리의 대규모 집단 작업장이었다.

이처럼 불이 나서 사라지는 국립, 사립 작업실들이 많이 있는데 피해자인 작가들 대부분은 재개발을 위한 고의적 화재로 추정할 정도로 1990년대부터 프랑스의 오래된 공장과 창고들이 작가작업실 용도를 마감하게 되었다.)

자생적으로 생긴 작업실의 정부지원 사례

-사립 임대건물

프랑스 법에는 안전의 문제가 있는 오래된 공장건물에서 거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가난한 많은 작가들의 현실은 그곳에서 작업과 숙식을 병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법 준수 및 안전의 책임이 있는 주인이 전기와 물을 끊고 이들을 내쫓는 일이 종종 있다. 이 과정에서 작가들과 심각한 투쟁이 벌어지고 상황에 따라 시의 공권력이 개입된다. 여러 가지 해결책 중에 시의 공권력이 작가들을 보호하는 경우도 있다. 1989년 한국작가 안중대와 프랑스작가 4명이 파리 근교, 팡탱(Pantin)의 한 공장장에서 시작했던 작업실 '고래배(Ventre de la baleine)'의 사례이다. 작가들의 투쟁 결과 철도청에 기차의자를 납품했던 폐쇄된 허름한 공장은 팡탱시의 보조로 안정성 있는 건물로 새 단장을 하게 되었고 작가들이 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결국 건물주도 작가들 덕에 거부가 되었고 보수 이후 현재 35명의 미술가와 여러 음악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곳은 팡탱시의 문화센터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지역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 임대건물

작가한테 중요한 것은 작업실의 사용기간

**파리에 한국미술가
단체인 소나무협회가 있다.
처음 한국인 몇 명에 불과했던 이
협회가 1991년 프랑스 국방성으로
부터 무기창고로 사용했던 공간을
대여 받아 한때 화단에
화젯거리가 되었다.**

과 가격, 위치도 포함된다. 이런 면에서 작업실을 구하는 모든 작가들의 이목을 받았던 몇 개의 국가 건물 중 파리에 남아 있는 한 대형공간이 있었다. 이것을 작가들이 차지하여 지금까지 가장 큰 승리를 한 예가 있다. 철도청 소속의 기차음식 냉동 보관용도의 창고를 임대했던 파리 13구의 작업실 '레 프리고(Les Frigos)' 주인이 국가를 상대로 오랜 기간 끈질긴 투쟁을 한 결과 작가들은 쫓겨날 상황을 면했을 뿐 아니라 아예 국가가 인정하는 작업실이 되었으며 그 지역의 길 이름도 '레 프리고'로 명명되었다.

위와 같이 작가가 승리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에 작가들이 개인이 아닌 협회로 연합 투쟁한 것과 소속구역의 정치적 성향이 작가들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나무협회 작업실의 프랑스 정부와 시의 지원 사례

파리에 한국미술가 단체인 소나무협회가 있다. 처음 한국인 몇 명에 불과했던 이 협회가 1991년 프랑스 국방성으로부터 무기창고로 사용했던 공간을 대여 받아 한때 화단에 화젯거리가 되었다. 파리 근교에 5,000평방미터라는 공간의 크기도 놀랍지만 거의 공짜로 받았기 때문이다. 조건은 도시계획으로 헐릴 때까지만 사용하는 것이었다.

까상 작가촌



한국작가들은 그곳을 공동작업실로 보수한 후 전체의 십분의 일을 전시장으로 할애하고 14개국의 외국작가들을 선발, 총 46명의 작가들로 구성되어 작업실 '아스날(Artsenal)'을 창단했다. (작업실 건물은 작업실이 소재한 이씨레물리노(Issy-les-Moulineaux)의 시와 상관 없이 정부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었지만.) 시장과 시민들은 처음부터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였고 이 여파는 시의 영토에 새 작업실 '아쉬(Arche)'를 신축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목적은 작업실 폐쇄 후 흩어질 작가들을 시에 계속 안주하게 하려는 예술가 보호의 의미와 지역사회의 문화육성이다.

또 TGV와 관계된 프랑스 보험회사는 파리에 있는 회사공간을 무상으로 이 협회에 제공해 5년간 화랑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소나무협회의 공동작업실은 200여 명의 작가들에게 일터를 제공하고, 두 개의 전시장에서 200회 이상의 전시를 기획함으로써 외부작가들에게 작품창작의 동기 제공 및 한불 문화교류의 장터와 같은 역할을 또한 제공했다. 이와 같은 활동은 한국인 개개인보다는 미술 하는 한국인들이라는 '그룹'으로서의 시선을 받게 되어, 작가는 그 지역과 파리한인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연대감을 조성하고 크케는 미술계에 한국이 조명 받을

**작업실 지원 제도가
단발적인 건물 짓기식의 '행장'
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으로 작가의
자유로운 창작 여건을 지원하며
백년대계의 문화강국을 이끌어
가는 정부 작업실이
되길 바란다**

수 있는 작은 무대가 형성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11년 동안 사용한 '열린 공동작업실' 아스날은 철거되었다. 회원의 일부가 이씨레물리노의 개인작업실 '아쉬'와 다른 공간으로 흩어졌고 반 이상은 아직도 작업실이 없는 상태이다. 이들은 현재 새로운 '공동작업실'을 찾고 있다.

이 협회의 정신은 현 회원의 작업실 마련 이상으로 프랑스에 먼저 온 선배로서, 꿈을 갖고 찾아오는 후배들과 현지의 어려운 작가들이 함께 쉴 수 있는 마치 '풍성한 가지와 잎이 있는 푸른 소나무'가 되는 것이다.

한국작가들이 과거처럼 이곳 미술계에서 '신바람' 나게 일할 새로운 공동작업실을 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파리 근교의 시장들을 만나며 시 소속의 장소 제공을 요청했으나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이곳의 한국대사(장재룡 전대사)와 문화원 등에서 프랑스 정부의 공간을 문의했지만 10여 년 전의 사정과는 달리 이제 더 이상 정부의 건물이 없는 현실이다. 결국 해결책은 정부 외의 사립작업실을 임대하거나 사는 것이니 작가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소나무협회의 예처럼 한국 정부가 프랑스에 있는 한국 작가들의 활동과 작업실 현황에도 이 기회에 따뜻한 눈으

포르투와즈 '레지당스 세잔느' 작업실과 그 내부





이씨레물리노 작업실 '아쉬'

로 바라보고 이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는 대책이 있기를 바란다.

한국 정부에 바라는 작가작업실 지원대책 방안

문화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는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여러 각도의 창의력이 필요하다. 이씨레물리노 시에서 그 지역작가들을 위한 작업실 아쉬를 지을 때는 오랜 시간의 노력이 필요했다. 시가 소유한 땅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이다. 대책은 기차가 다니는 다리 밑을 이용하는 것으로, 여러 건축가들을 경합하여 작가한테 가장 좋은 방식이 채택되었다. 결과적으로 썰렁했던 그 지역의 경관도 새롭게 살아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 그 지역의 명물로 등장하게 되었다.

과거부터 존재해 왔던 묵은 요소들도 미래를 위한 구상에 재사용 된다면 그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 곧 창작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모두 창작에 해당한다.) 그러나 창작할 때에는 그 대상에 애정을 가져야만 그 결과가 더 아름답다.

'라 루쉬' 작업실은 창시자가 작가들과 함께 생활을 하며 작업실의 신축과 보수를 하는 등, 작가들의 필요한 부분을 현장에서 지원함으로써 그의 생존시에 가장 융성하였다고 한다. 정부가 만들어 놓은 작가작업실에, 정부도 같이 사는 것처럼 운영되는 국가작업실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 개인이 운명할 때까지 작가들을 보살피듯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작가작업실에 정부도 같이 사는 것처럼 운영되는 장기적인 국가작업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작업실 지원 제도가 단발적인 건물 짓기식의 '행정'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으로 작가의 자유로운 창작 여건을 지원하며 백년대계의 문화강국을 이끌어 가는 정부 작업실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이번 정부의 작가작업실 지원이 한국에 있는 작가들의 창작에 실질적인 뒷받침이 되는 뜻깊은 일인 것처럼 외국에 있는 한국 및 다국의 작가들에게도 고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제도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외국의 어려운 환경 안에서 작업하는 한국작가들의 현지 작업실 마련 대책과 같은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